

望氣色에 대한 연구

김용찬 · 강정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Study on Visible Diagnosis of Energy and Color

Yong Chan Kim, Jung Soo Kang*

Department of Oriental Medical Physiology, Daejeon University

This study was written in order to help understanding of visible diagnosis of energy and color(氣色). Visible diagnosis of energy and color is a very important factor of diagnosis and a necessary step of visible diagnosis. As human's body is under the control of spirit(神) and spirit(神) is stored by five viscera(五藏), so spirit expresses the change of five viscera and is reflected by energy and color(氣色). Strictly speaking, energy and color(氣色) is not divided into each other. But, we can say that glittering glossy part belongs to energy(氣) and blue, red, yellow, white and black part belongs to color(色). Various changes of energy and color(氣色) observe the rules of yin-yang(陰陽). If we consider the interior and exterior(內外), top and bottom(上下), right and left(左右), rise and fall(浮沈), clearness and muddiness(清濁), weak and severe(微甚), spread and gather(散搏), gloss and dryness(澤天) etc. we can decide the yin and yang(陰陽), inside and outside(表裏), coldness and heatness(寒熱), truth and false(虛實), life and death(生死) and prognosis. One man's own color is determined by the five human type(五形人). There are very various points of changing colors. As divided into principal groups, there are three main groups, that is, sky(天), earth(地) and man(人). A season(四時), day and night(晝夜) and cloud and clear(陰晴) belong to the factor of sky(天), a direction and configuration of the ground(地形) belong to the factor of earth(地), and motion and rest(動靜), seven emotions(七情), age and youth(老少), poor and rich(貧富) and high and low(貴賤) belong to the factor of man(人).

Key words : energy and color(氣色), appearance(形), visible diagnosis

서론

한의학에서의 진단은 望聞問切의 四診으로 大別된다. 그 중 望診은 望而知之謂之聖이라 하여 그 첫째자리를 차지할만큼 중요하다. 망진은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안점에 따라 望神, 望氣色, 望動態, 望形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어디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이를 心應이라 한다. 의사의 응하는 바가 바로 주안점이 되어 위의 요소들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人身은 神이 주재하여 삶을 영위한다. 神은 藏에 깃들고, 藏은 神의 상태, 氣色, 動態, 形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한의학에서 藏象의 개념이다. 따라서 望診은 藏象을 살핌으로써 神의 상태를 파악하여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診斷法이다.

물질화된 形으로는 누적된 상태를 살필 수 있지만 미묘한 상태까지는 살피기 힘들다. 神의 변화는 수시로 미묘하게 변화되므로 氣色·動態로 이를 살핀다. 이 중 氣色은 그 응함이 신속하므로 이를 통하여 神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氣色은 각각의 사람이 타고난 氣色을 근본으로 하여, 四時의 변화, 살고 있는 지역 및 지형, 생활양식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가 있고, 이는 陰陽五行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변화가 나타남에 順應하면 생리적인 변화가 나타나지만 不應하면 병적인 변화가 나타나니 이를 파악하면 진단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望診遵經』에서는 望診에 있어서 臟腑部位가 體가 되고, 氣色診法이 用이 되므로, 나누어 살피면 그 常을 알 수 있고, 合하여 참작하면 그 變을 통할 수 있는데, 그 常變을 궁구함에 그 始終을 찾아야 하니 그 요령은 음양의 가리킵에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氣色은 全身을 모두 살피지만 面部의 氣色을 특

* 교신저자 : 강정수,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omdkjs@dju.ac.kr, · Tel : 042-280-2617

· 접수 : 2005/06/01 · 수정 : 2005/06/27 · 채택 : 2005/07/18

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제7기 졸업준비위원회, 望診遵經, 서울, 목과사, 2000, pp. 19-20.

히 중시한다. 그 이유는 十二經脈과 三百六十五絡의 血은 모두 面部로 上注하고 空竅로 가고, 多氣多血한 足陽明胃經이 面部에 분포해 있음으로 해서 面部에는 血脈이 풍부하여 내재한 臟腑와 氣血의 盛衰가 面部의 色澤으로 반영되는데, 특히 面部의 피부는 얇고 연하여 色澤의 변화가 용이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望診에서 氣色の 중요성을 깨닫고 연구하던 중 氣色の 時空에 따른 順逆에 대하여 약간의 知見이 있어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본 론

1. 氣色

1) 氣色과 神의 관계

사람의 生은 五臟에 있고, 五臟이 몸을 구성하면 眞臟之氣가 있다. 얼굴 위로 올라오는 것을 氣라 하고 밖에 드러나는 것을 色이라 하며, 皮上에 드러나는 것을 色이라 하고 피부의 裏에 차는 것을 氣라고 하니 모두 五臟에서 發한다. 五臟은 神이 거처하는 바로 吉凶이 있으면 모두 먼저 色에 응하여 얼굴에 나타난다²⁾. 張景岳은 “色生于氣 氣生于藏 … 其氣華于色”이라고 하여, 色은 氣에서 생기고 氣는 藏에서 생키며 그 氣는 色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³⁾. 色은 氣에서 생키니 淸濁을 분별하고, 神은 氣로住하니 形을 이룬다⁴⁾ 하였으니, 이는 모두 神은 氣色으로 외현된다는 것이다.

2) 氣色の 구분

脈은 胃氣로 本을 삼고, 望色은 潤澤으로 本을 삼는다. 潤澤의 有無는 胃氣의 有無와 같다. 脈의 胃氣는 脈의 神이고, 色의 潤澤은 色의 神이다. 潤澤한 것은 血氣의 榮이 光明한 것으로, 潤澤이 드러나면 血氣가 있는 것이고, 潤澤이 있으면 光明이 있는 것이다. 무릇 光明潤澤한 것은 氣이고, 靑赤黃白黑한 것은 色이다⁵⁾. 구체적으로 보면 얼굴 위로 올라오는 것을 氣라 하고 밖에 드러나는 것을 色이라 하며, 皮上에 드러나는 것을 色이라 하고 피부의 裏에 차는 것을 氣라고 한다. 얼굴의 氣가 끓는 것처럼 피어올라서 무성하게 치성하여 일어나는 것은 氣이고, 모발처럼 흩어지고 날알처럼 모여서 보면 形이 있지만 만지면 흔적도 없는 것을 色이라 한다⁶⁾. 그렇기 때문에 色은 虛에 속하고 氣는 實에 속하며, 氣는 骨을 따라 나타나고 色은 肉을 따라 드러난다⁷⁾. 이를 비교하면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氣色の 비교

在	虛實	발현	형용
氣	皮裏 實	骨을 따라 나타남	끓는듯한 面의 氣가 피어올라 무성하게 치성하여 피어오르는 것
色	皮上 虛	肉을 따라 드러남	모발처럼 흩어지고 날알처럼 모여서, 보면 形이 있지만 만지면 흔적도 없는 것

色은 皮外에 드러나고 氣는 皮中에 머금어져 있으니 안팎으

로 光澤이 있는 것은 氣色이 서로 融合한 것이다. 色은 나타나지만 氣가 없으면 病이 들지 않았더라도 命이 기울어질 것이고, 氣는 있는데 色이 없으면 비록 病으로 고생하더라도 凶한 症候는 아니다⁸⁾. 無氣有色하면 不發하거나 혹 發하더라도 곧 敗하지만, 有氣無色하면 결국에는 영화롭다⁹⁾고 하여 氣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3) 氣色の 陰陽

顏面을 內外·上下·左右의 六部로 나누어 말하면, 外와 上和 左는 모두 陽이고, 內와 下와 右는 모두 陰이다.

浮·沈·淸·濁·微·甚·散·搏·澤·夭의 10가지를 色診十法이라 하는데, 浮·淸·甚·散·澤은 陽이고, 沈·濁·微·搏·夭는 陰이다. 이에 氣와 色을 겹쳐서 살펴 部位를 서로 고찰하면 陰陽이 서로 섞이어서, 陰中에 陽이 있고 陽中에 陰이 있으니, 이것이 陰陽의 提綱이다. 그렇기에 不浮·不沈·不淸·不濁·不微·不甚·不散·不搏·不澤·不夭하고 光明潤澤 血華其色한 陰陽에 치우치지 않은 상태를 平人之色이라 한다.

浮는 面色이 皮膚之表로 浮顯되는 것으로서 表病을 주한다. 沈은 面色이 皮膚之內에 沈隱해 있는 것으로 裏病을 주한다. 面色이 由浮轉沈하는 것은 病이 由表入裏함을 의미하고, 由沈轉浮하는 것은 病이 自裏出表함을 의미한다. 淸은 面色이 淸明한 것으로서 陽證을 주한다. 濁은 面色이 濁暗한 것으로서 陰證을 주한다. 面色이 淸에서 濁으로 바뀌는 것은 病이 陽에서 陰으로 入함을 의미하고, 濁에서 淸으로 바뀌는 것은 病이 陰에서 陽으로 出함을 의미한다. 微는 面色이 淺淡한 것으로 正虛를 주한다. 甚是 面色이 深濃한 것으로서 邪實을 주한다. 面色이 微에서 甚으로 바뀌는 것은 病이 虛에서 實로 變함을 의미하고, 淸에서 微로 바뀌는 것은 病이 實에서 轉로 變함을 의미한다. 散은 面色이 疏散한 것으로 新病을 주하며 病死가 解除되려는 것이다. 搏은 面色이 壅滯한 것으로서 久病을 주하며 病死가 漸聚되는 것이다. 面色이 먼저 搏하고 뒤에 散하는 것은 病이 비록 오래되었으나 邪氣가 점차 풀리는 것을 의미하고, 먼저 散하고 뒤에 搏하는 것은 病이 비록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邪氣가 점차 結聚되려는 것을 의미한다. 澤은 面色이 潤澤한 것으로서 臟精이 未衰하여 病輕易治함을 뜻한다. 夭는 面色이 枯槁한 것으로 臟精이 衰敗하여 病重難治함을 뜻한다. 面色이 澤에서 夭로 바뀌는 것은 病勢가 危重함을 의미하고, 夭에서 澤으로 바뀌는 것은 病에 생기가 있음을 의미한다¹¹⁾.

陰陽의 道를 보면, 陽은 淸하고 陰은 濁하고 陽升陰降하며, 陽熱陰寒하고 陽動陰靜하며 陽外陰內하고 陽上陰下하고 陽左陰右하며, 陽道는 實하고 陰道는 虛하며, 陽常有餘하고 陰常不足하다. 이런 까닭에 色이 陽에서 드러나면 치료하기 쉽고, 陰에서 드러나면 치료하기 어렵다. 外感에서 陰病에 陽色이 나타나면 치료하기 쉽고, 陽病에 陰色이 나타나면 치료하기 어려우며, 內傷에서 陽病에 陰色이 나타나면 치료하기 쉽고, 陰病에 陽色이 나타나면 치료하기 어려우니, 이는 陰陽의 이치이다¹²⁾.

2) 이봉교·박영배·김태희, 漢方診斷學, 서울, 성보사, 1992, p. 45.

3) 陳淡菴, 相理衡眞, 中國, 武陵出版有限公司, 1992, p. 433.

4) 임양근, 진단학 아틀라스 망진, 서울, 정담, 2003, p. 59.

5) 陳淡菴, 相理衡眞, 中國, 武陵出版有限公司, 1992, p. 280.

6)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제7기 졸업준비위원회, 望診遠經, 서울, 목과土, 2000, pp. 50-51.

7) 陳淡菴, 相理衡眞, 中國, 武陵出版有限公司, 1992, p. 433.

8) 秦慎安, 神相鐵關刀, p. 33.

9) 윤창열·김용진·김정규, 懸吐完譯 四診心法要訣, 대전, 주민출판사, 2001, pp. 19-20.

10) 秦慎安, 神相鐵關刀, p. 33.

11) 이봉교·박영배·김태희, 漢方診斷學, 서울, 성보사, 1992, pp. 48-49.

氣色을 살피고 生克을 분별하면 진실로 病의 順逆과 從違를 알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浮沈의 法으로써 헤아려 보면 病의 表裏를 알 수 있고, 淸濁의 法으로써 헤아려 보면 病의 陰陽을 알 수 있고, 微甚의 法으로써 헤아려 보면 病의 虛實을 알 수 있고, 散搏의 法으로써 헤아려 보면 病의 遠近을 알 수 있고, 澤夭의 法으로써 헤아려 보면 病의 成敗를 알 수 있다¹³⁾.

望診十法에서는 診斷八綱의 陰陽·表裏·虛實에 예후까지 제시되었으나 寒熱이 없다. 『素問·經絡論』에서 寒이 많으면 凝泣하니 靑黑해지고, 熱이 많으면 渾澤하니 黃赤하다고 하였으니¹⁴⁾ 寒熱은 色으로 구분한다.

Table 2. 色診十法과 診斷八綱

色診十法	陽	陰	診斷八綱
浮沈	浮 表	沈 裏	表裏
淸濁	淸 病在陽	濁 病在陰	陰陽
微甚	微(淺淡) 虛	甚(甚濃) 實	虛實
散搏	散 풀리는 것	搏 모이는 것	(聚散)
澤夭	澤(滋潤) 生	夭(枯槁) 死	(生死)
(*色)	黃赤 熱	靑黑 寒	寒熱

氣色으로 臟腑를 구분함에 있어서 浮澤은 外가 되니 病은 마땅히 腑에 속하고, 沈濁은 內가 되니 病은 마땅히 臟에 속한다. 다시 氣色과 部位를 합하여 臟腑를 구분하면, 色이 臟腑에서 나타날 때 色이 深濃하면 마땅히 臟氣가 有餘한 病이며, 色이 淺淡하면 마땅히 臟氣가 不足한 病이다. 色이 腑部에서 나타날 때 色이 深濃하면 마땅히 腑氣가 有餘한 病이며, 色이 淺淡하면 마땅히 腑氣가 不足한 病이다¹⁵⁾.

陽病에 陽色이 나타나고 陰病에 陰色이 나타나는 것은 宜이요, 陽病에 陰色이 나타나고 陰病에 陽色이 나타나는 것은 忌이다. 邪가 表에 盛하면 色은 浮淸해야 하는데 오히려 沈濁이 나타나면 忌이다. 氣가 裏에서 衰하면 色은 沈濁해야 하는데 오히려 浮淸이 懶惰나면 忌이다. 身熱·煩躁·譫語·妄言은 그 色이 마땅히 赤해야 하는데, 도리어 肢厥·面靑한 것은 忌이다. 傷寒에 發汗後 吐法이나 下法을 쓰면 그 色은 黃해야 마땅한데 도리어 熱盛하여 色赤한 것은 忌이다. 失血과 津液이 脫된 것은 色이 마땅히 黃白해야 하는데 도리어 面色이 鮮赤한 것은 忌이다. 下痢·便膿血은 色이 黃 澁해야 하는데 도리어 身熱·面赤한 것은 忌이다. 麻痘·斑疹·瘡瘍은 마땅히 赤해야 하는데 도리어 靑黑한 것은 忌이다. 霍亂吐瀉·諸嘔泄瀉는 色이 모두 黃해야 하는데 도리어 靑黯한 것은 忌이다. 무릇 色과 病이 상응한 것은 宜요, 相反된 것은 忌이다. 相反됨이 미미한 것은 難治이고, 심하면 卽死한다¹⁶⁾.

4) 氣色の 이동

氣色은 넓은 쪽에서 예리한 방향으로 흐른다¹⁷⁾. 色이 上行하는 것은 病이 더욱 심해지고, 色이 下行하여 구름이 흩어지는 것 같으면 病이 그친다. 五色은 각각 臟의 부위가 있고, 外부가 있고 內부가 있는데, 色이 外부에서 內부로 가면 그 病은 外에서 內로 가고, 色이 內에서 外로 가면 그 病도 內에서 外로 간다¹⁸⁾. 그 病이 內에서 생긴 것은 먼저 그 陰을 치료해야지 반대로 하면 病이 더욱 심해지고, 外에서 생긴 것은 먼저 그 陽을 치료해야지 반대로 하면 病이 더욱 심해진다.

『素問·玉版要論』에서는 容色이 上下左右에서 보이는 것은 각각 그 要에 있다고 하면서 “其色見淺者 湯液主治 十日已 其見深者 必齊主治 二十一日已 其見大深者 醪酒主治 百日已 色夭面脫不治 百日盡已 脈短氣絕死 病溫虛甚死”라 하고 “色見上下左右各在其要 上爲逆 下爲從 女子右爲逆 左爲從 男子左爲逆 右爲從 易 重陽死 重陰死”¹⁹⁾라 하여 男女의 차이를 나타냈다.

2. 氣色の 天·地·人에 따른 常變

氣色은 五臟六腑의 징후를 맡는다. 사람은 陰陽을 포괄하여 質이 되므로 五行의 色에 속하고, 四時의 氣色을 변별하는 것은 또한 五行의 屬하는 바이며, 靑黃赤白黑은 이에 四時의 正氣이다. 『洞微王鑑』에 이르기를 氣라는 것은 하나일 뿐이지만 변별하여 論하면 셋이 있다고 하였으니 自然之氣, 所養之氣, 所襲之氣이다.

自然之氣는 五行의 秀氣로 내가 품부받은 것이니 그 情은 항상 존재한다. 所養之氣는 뜻으로 받아 생하는 氣로 내가 스스로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사물이 흔들지 못한다. 所襲之氣는 이에 邪氣로 만약 있는 바가 厚하지 않고 기르는 바가 채우지 못하면 邪氣가 침습한다²⁰⁾.

1) 타고난 色

여러 사람의 색이 동일한 것은 氣候의 常이고, 여러 사람이 같지 아니한 것은 품부의 變이다. 그러므로 대개 氣質이 고르지 아니하고 形色이 다르다.

『靈樞·陰陽二十五人』에 이르기를 “木形之人 … 其爲人, 蒼色, 小頭, 長面, 大肩背, 直身, 小手足, 好有才, 勞心, 少力, 多憂, 勞於事. … 火形之人, … 其爲人, 赤色, 廣削, 脫面, 小頭, 好肩背, 脾腹, 小手足, 行安地, 疾心, 行搖, 肩背肉滿, 有氣, 輕財, 少信, 多慮, 見事明, 好顏, 急心, 不壽暴死. … 土形之人, … 其爲人, 黃色, 圓面, 大頭, 美肩背, 大腹, 美股脛, 小手足, 多肉, 上下相稱, 行安地, 舉足浮安, 心好利人, 不喜權勢, 善附人也. … 金形之人 … 其爲人, 方面, 白色, 小頭, 小肩背, 小腹, 小手足, 如骨發踵外, 骨輕, 身淸廉, 急心靜悍, 善爲吏 … 水形之人 … 其爲人, 黑色面不平, 大頭廉頤, 小肩, 大腹, 動手足, 發行搖身, 下尻長背, 延延然, 不敬畏, 善欺給人戮死²¹⁾”한다 하였다.

五形人의 外形上 특징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12)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제7기 졸업준비위원회, 望診遠經, 서울, 木과土, 2000, pp. 19-21.
 13)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제7기 졸업준비위원회, 望診遠經, 서울, 木과土, 2000, p. 53.
 14) 홍원식,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5, p. 200.
 15)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제7기 졸업준비위원회, 望診遠經, 서울, 木과土, 2000, p. 17.

16)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제7기 졸업준비위원회, 望診遠經, 서울, 木과土, 2000, pp. 58-59.
 17) 홍원식,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5, p. 228.
 18) 홍원식,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5, p. 226.
 19) 홍원식,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5, p. 52.
 20) 陳淡菴, 相理衡眞, 中國, 武陵出版有限公司, 1992, pp. 434-435.
 21) 홍원식,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5, pp. 274-275.

Table 3. 五形入의 外形

	色	頭	面	肩背	手足	腹
木形	蒼	小	長	大	小	
火形	赤	小	脫	肉滿	小	
土形	黃	大	圓	美	小	大
金形	白	小	方	小	小	小
水形	黑	大頭廉頭	不平	小	動	大

품부받은 바의 五行이 盛하면 그 氣色이 현저하게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五形의 사람은 그 臟腑의 盛衰와 骨節의 大小, 筋의 粗細, 肉의 堅脆, 皮의 厚薄, 血의 清濁, 氣의 滑澀, 脈의 長短, 血의 多少, 經絡의 數, 營衛의 정도가 각각 가지런하지 않으니 그 타고난 바가 된다²²⁾.

2) 正色과 色의 合化·相兼

(1) 正色

「陰陽應相大論」에서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 肝生筋, 筋生心, 肝主目. … 神在天爲風, 在地爲木, 在體爲筋, 在臟爲肝, 在色爲蒼, … 南方生熱, 熱生火, 火生苦, 苦生心, 心生血, 血生脾, 心主舌. 其在天爲熱, 在地爲火, 在體爲脈, 在臟爲心, 在色爲赤, … 中央生濕, 濕生土, 土生甘, 甘生脾, 脾生肉, 肉生肺, 脾主口. 其在天爲濕, 在地爲土, 在體爲肉, 在臟爲脾, 在色爲黃, … 西方生燥, 燥生金, 金生辛, 辛生肺, 肺生皮毛, 皮毛生腎, 肺主鼻. 其在天爲燥, 在地爲金, 在體爲皮毛, 在臟爲肺, 在色爲白, … 北方生寒, 寒生水, 水生鹹, 鹹生腎, 腎生骨髓, 髓生肝, 腎主耳. 其在天爲寒, 在地爲水, 在體爲骨, 在臟爲腎, 在色爲黑²³⁾” 하였다. 木은 靑을 化生하고, 肝은 木을 主하므로 肝은 靑을 化生한다. 다른 장부도 이와 같다. 하늘은 風·暑·濕·燥·寒의 五氣로 사람을 먹이는데 氣를 통하여 들어간다. 風氣는 肝에 들어가고, 暑氣는 心에 들어가고, 濕氣는 脾에 들어가고, 燥氣는 肺에 들어가고, 寒氣는 腎에 들어가서 사람의 五藏에 저장되니 그 精氣가 쌓이면 위로 얼굴에 그 精華가 나타난다. 肝의 精華는 靑色으로 化하고, 心의 精華는 赤色으로 化하고, 脾의 精華는 黃色으로 化하고, 肺의 精華는 白色으로 化하고, 腎의 精華는 黑色으로 化한다²⁴⁾. 이를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Table 4. 五藏의 正色과 발현

五行	五藏	天氣	入	面에서의 精華의 化色	
木化生靑	肝主木	肝化生靑	風	肝	靑
火化生赤	心主火	心化生赤	暑	心	赤
土化生黃	脾主土	脾化生黃	濕	脾	黃
金化生白	肺主金	金化生白	燥	肺	白
水化生黑	腎主水	腎化生黑	寒	腎	黑

(2) 合化·相兼

變色의 大要는 生克과 逆順이다. 靑色과 赤色이 兼하여 化하고 赤色과 黃色이 合一한다. 黃色과 白色이 合하면 淡黃色이고, 黑色과 靑色이 合하면 짙은 靑玉色이고, 白色과 黑色이 合한 것

은 淡黑色이다. 이는 모두 相生의 관계에 있는 색이 合化한 變色이니 病의 예후가 양호한 順症을 나타낸다. 白色과 靑色이 合한 것은 얼은 靑玉色이고, 赤色과 白色이 合하면 紅色으로 化하고, 靑色과 黃色이 合하면 綠色으로 변하고, 黑色과 赤色이 合하면 紫色이 되고, 黑色과 黃色이 合하면 검은런(黧) 색이 된다. 이는 모두 相克의 관계에 있는 색이 兼化한 變色이니 病의 예후가 불량한 逆症을 나타낸다²⁵⁾.

Table 5. 色의 合化·相兼

合化(相生)		相兼(相克)	
靑赤	紅하면서 靑을 兼	靑黃	綠色
赤黃	紅하면서 黃을 兼	黃黑	靛
黃白	淡黃色	黑赤	紫色
白黑	淡黑色	赤白	紅色
黑靑	深靑玉色	白靑	淺靑玉色
↓		↓	
病人 경우 : 病의 예후 양호		病人 경우 : 예후 불량	

(3) 色의 初·中·末

色이 나타나면 色의 新舊를 구분해야 이것이 시작인지 왕성한 것인지 물러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그래야만 진단과 예후가 정밀해진다.

靑色이 처음 일어나면 우물 가운데의 푸른 이끼와 같고, 가득하면 靑銅의 무리와 같으며, 물러나면 아름다운 풀의 색과 같다. 黃色이 처음 일어나면 누에가 실을 토하는 것 같고, 盛하면 누에고치의 실과 같으며, 오면 黃한 말이나 소의 색과 같고, 물러나면 버드나무 꽃의 斑과 같다. 赤色이 처음 일어나면 불이 오는 것 같고, 가득하면 硃砂를 갈아놓은 것 같으며, 물러나면 紅한 연꽃의 꽃잎같으니, 계속하여 紅과 紫가 비록 같다고 하지만 深淺의 구별이 있다. 白色이 처음 일어나면 지방과 기름을 발라 높은 것 같고, 盛하면 가루를 바른 것 같으며, 물러나면 희색 때가 질척한 것 같다. 黑色이 처음 일어나면 흩어진 것이 말의 꼬리와 같고 또한 따뜻한 灰色이고, 물러나면 먼지나 때와 같다²⁶⁾. 이를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Table 6. 色의 初·中·末

	初起	盈·盛	去
靑	井中靑苔	美草之色	靑銅之暈
赤	火來	研開朱砂	紅蓮花瓣
黃	蠶吐絲	蠶繭之絲	黃馬牛之色
白	脂膏塗抹	塗粉	灰垢泥
黑	散如馬尾, 溫灰色		塵垢

3) 天

(1) 四時

① 四時正色の 변화

經에 이르기를 “春氣는 經脈에 있고, 夏氣는 孫絡에 있고, 長夏氣는 肌肉에 있고, 秋氣는 皮膚에 있고, 冬氣는 骨髓에 있다”고 하였다. 氣의 內外는 時에 因하고, 色의 浮沈은 당연히 氣

22)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제7기 졸업준비위원회, 望診遵經, 서울, 木과 土, 2000, pp. 42-43.

23) 홍원식,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5, pp. 23-24.

24) 윤창열·김용진·김정규, 懸吐完譯 四診心法要訣, 대전, 주민출판사, 2001, p. 13.

25) 윤창열·김용진·김정규, 懸吐完譯 四診心法要訣, 대전, 주민출판사, 2001, pp. 11-12.

26) 陳淡堃, 相理衡眞, 中國, 武陵出版有限公司, 1992, pp. 278-279.

에 困한다. 그러므로 氣의 內外로써 그 色의 浮沈을 알 수 있고, 또한 色의 浮沈으로써 그 氣의 內外를 알 수 있다. 天에는 五行이 있어 時에 맞춰 化育하므로써 萬物을 이루기 때문에 氣色은 이를 따른다.

春에는 肝木이 旺하고, 그 色은 靑이다. 심하게 浮淸한 것이 太過로 病은 外에 있다. 微微하게 沈濁한 것이 不及으로 病은 內에 있다. 春은 潤澤으로 本을 삼으니 春時의 色은 靑이다. 마치 흰 비단으로 紺을 감싸듯하면 平이다. 靑色이 많고 潤澤이 적은 것이 病이고, 단지 靑色이고 潤澤이 없어 마치 마른풀과 같은 뜻을 띤 것이 死이다. 夏에는 心火가 旺하다. 그 色은 赤이다. 심하게 浮淸한 것이 太過로 病은 外에 있다. 미미하게 沈濁한 것이 不及으로 病은 內에 있다. 夏는 潤澤으로 本을 삼으니, 夏時의 色은 赤이다. 마치 흰 비단으로 朱砂를 감싸듯 하면 平이다. 赤色이 많고 潤澤이 적은 것이 病이고, 단지 赤色이고 潤澤이 없어 衄血과 같은 것이 死이다. 長夏에는 脾土가 旺하다. 그 色은 黃이다. 심하게 浮淸한 것이 太過로 病은 外에 있고, 미미하게 沈濁한 것이 不及으로 病은 內에 있다. 長夏에는 潤澤으로 本을 삼으니, 長夏의 色은 黃이다. 마치 흰 비단으로 瓜萹實을 감싸듯 하면 平이다. 黃色이 많고 潤澤이 적은 것이 病이고, 단지 黃色이고 潤澤이 없어 枳實과 같은 것이 死이다. 秋에는 肺金이 旺하다. 그 色은 白이다. 심하게 浮淸한 것이 太過로 病은 外에 있고, 미미하게 沈濁한 것이 不及으로 病은 內에 있다. 秋에는 潤澤으로 本을 삼으니, 秋時의 色은 白이다. 마치 흰 비단으로 紅을 감싸듯 하면 平이다. 白色이 많고 潤澤이 적은 것이 病이고, 단지 白色이고 潤澤이 없어 枯骨과 같은 것이 死이다. 冬에는 腎水가 旺하다. 그 色은 黑이다. 심하게 浮淸한 것이 太過로 病은 外에 있고, 미미하게 沈濁한 것이 不及으로 病은 內에 있다. 冬에는 潤澤으로 本을 삼으니, 冬時의 色은 黑이다. 마치 흰 비단으로 紫를 감싸듯 하면 平이다. 黑色이 많고 潤澤이 적은 것이 病이고, 단지 黑色이고 潤澤이 없어 煤炭과 같은 것이 死이다.

Table 7. 四時 正色の 변화

四時	通藏	客色	平	病	死	太過로 病	不及으로 病
春	肝	靑	흰비단으로紺을 싼 듯	多靑色 少潤澤	無潤澤 但靑色 如마른풀		
夏	心	赤	흰비단으로주사를 싼 듯	多赤色 少潤澤	無潤澤 但赤色 如어물		
長夏· 四季	脾	黃	흰비단으로과루실을 싼 듯	多黃色 少潤澤	無潤澤 但黃色 如지실	심하게 浮淸	미미하게 沈濁
秋	肺	白	흰비단으로紅을 싼 듯	多白色 少潤澤	無潤澤 但白色 如枯骨		
冬	腎	黑	흰비단으로紫를 싼 듯	多黑色 少潤澤	無潤澤 但黑色 如매연		

其時에 其色을 보이면 常이고, 其時가 아닌 때 其色을 보이면 變이다. 變이 혹 時에 앞서 보이고 時에 뒤따라 물러가는 것은 太過이다. 時에 뒤쳐져 보였다가 時보다 먼저 물러가는 것은 不及이다.

太過하면 勝하는 바를 천대하고, 不勝하는 바를 업신여긴다. 不及하면 勝하는 바가 妄行하고, 生하는 바가 病을 받고, 不勝하는 바가 천대한다. 生克으로 말하면, 色이 時를 生하면 虛邪, 時가 色을 生하면 實邪, 色이 時를 克하면 賊邪, 時가 色을 克하면

微邪, 色과 時가 相應하면 正邪가 된다.

氣色과 더불어 相應하는 것은 順時이고, 相應하지 않는 것은 逆時인데, 이 또한 四時·五色의 變化와 太過·不及은 氣를 살펴 參觀할 수 있다. 邪氣가 身에 客하면 勝으로써 相加되고, 生하는 바에 이르면 낮고, 不勝하는 바에 이르면 심해지고, 生하는 바에 이르면 유지되고, 其位를 스스로 얻으면 起한다. 반드시 먼저 五藏의 色脈을 定하여 間基之時과 死生之期를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모두 四時의 大要이다²⁷⁾.

② 四時의 主客加臨(旺相休囚死)

五藏의 色이 主色이 되고 때에 따라 變하는 色이 客色이 되니, 봄에는 靑色이고 여름에는 赤色이며 가을에는 白色이고 겨울에는 黑色이며 長夏와 四季에는 黃色인 것이 법칙이다. 客色이 主色을 이기는 것이 좋고 主色이 客色을 이기는 것은 나쁘다. 이는 四時에 病이 들지 않은 常色에 대한 診法이다. 五藏의 色은 五形의 體質을 가진 사람을 따라서 보이며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主色이 된다. 四時의 色은 四時의 加臨을 따라서 變하는 것으로 그 변화에 恒상된 규칙이 없다. 그러므로 客色이 된다. 春氣는 肝에 통하니 그 色은 靑色에 해당하고, 夏氣는 心에 통하니 그 色은 赤色에 해당하고, 秋氣는 肺에 통하니 그 色은 白色에 해당하고, 冬氣는 腎에 통하니 그 色은 黑色에 해당하고, 長夏와 四季의 氣는 脾에 통하니 그 色은 黃色에 해당한다. 이는 四時의 常則이 되는 色이다. 歲氣가 人氣를 이기는 것이 順이 되므로 客色이 主色을 이기는 것이 좋은 것이라 하고, 人氣가 歲氣를 이기는 것이 逆이 되므로 主色이 客色을 이기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한다²⁸⁾.

봄에 白色이 있으면 相刑의 氣이고, 黃은 反逆이 되며, 검푸른 색은 相生이 되고, 靑은 比和가 된다. 여름에 黑色이 있으면 相刑의 氣가 되고, 白은 反逆이 되며, 靑黃은 相生이 되고, 赤은 比和가 된다. 가을에 赤色이 있으면 相刑의 氣가 되고, 靑은 反逆이 되며, 黃黑은 相生이 되고, 白은 比和가 된다. 겨울에 黃色이 있으면 相刑의 氣가 되고, 赤은 反逆이 되며, 靑白은 相生이 되고, 黑은 比和가 된다.

氣色은 때에 따라 바뀌니 그 候가 하나가 아니어서 潤澤하여도 혹 凶할 수 있고 枯燥하여도 或 吉할 수 있어, 절기에 따라 用이 되고 때와 더불어 消息함에, 相生·比和인 것은 吉하고 相刑·反逆인 것은 凶하다. 春三月에 靑色은 旺이고 赤色은 相이며 黃色은 死이고 白色은 囚이며 黑色은 休이다. 夏三月에 赤色은 旺이고 黃色은 相이며 白色은 死이고 黑色은 囚이고 靑色은 休이다. 秋三月에 白色은 旺이고 黑色은 相이며 靑色은 死이고 赤色은 囚이며 黃色은 休이다. 冬三月에 黑色은 旺이고 靑色은 相이며 赤色은 死이고 黃色은 囚이며 白色은 休이다.

또한 四季를 살펴 미루면 春氣는 일어나고자 하고, 夏氣는 橫하고자 하며, 秋氣는 下하고자 하고, 冬氣는 藏하고자 한다. 이 五氣가 때와 더불어 乘하는 것은 모두 凶하니, 오히려 時의 脈과 같다. 起라는 것은 머리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橫이라는 것은

27)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제7기 졸업준비위원회, 望診逢經, 서울, 목과土, 2000, pp. 32-35.

28) 윤창열·김용진·김정규, 懸壺完譯 四診心法要訣, 대전, 주민출판사, 2001, pp. 13-15.

요구하는 것이며, 아래는 것은 낮은 것이고, 藏이라는 것은 거두는 것이니, 모두 氣로 취한 것이다²⁹⁾.

Table 8. 四時에 따른 盛衰

	靑	赤	黃	白	黑
春	比和(旺)	(相)	反逆(死)	相刑(囚)	相生(休)
夏	相生(休)	比和(旺)	相生(相)	反逆(死)	相刑(囚)
秋	反逆(死)	相刑(囚)	相生(休)	比和(旺)	相生(相)
冬	相生(相)	反逆(死)	相刑(囚)	相生(休)	比和(旺)

③ 經絡의 正色

經絡은 經과 絡을 합한 개념이다. 『素問·經絡論』에서는 經에는 常色이 있지만 絡에는 常變이 없다고 하였다. 經은 心赤, 肺白, 肝靑, 脾黃, 腎黑한 것이 그 常色이다. 絡은 陰絡과 陽絡의 차이가 있으니, 陰絡의 색은 그 經을 따르고 陽絡의 색은 변하여 항상됨이 없으니 四時를 따른다. 寒이 많으면 凝泣하고 凝泣하면 靑黑하고, 熱이 많으면 滲澤하고 滲澤하면 黃赤하니 이것은 모두 常色이므로 無病하다³⁰⁾. 요약하면 經과 陰絡은 本臟의 常色을 따르고, 陽絡은 四時의 寒熱에 따른 變色을 따른다.

(2) 晝夜·기후

晝는 陽으로 衛氣가 陽分으로 行하고, 夜는 陰으로 衛氣가 밤에는 陰分으로 行하며, 날씨가 따뜻하고 해가 나오면 사람의 血이 젖어 넘쳐 衛氣가 잘 뜨고, 날씨가 춥고 해가 가려지면 사람의 血이 凝泣되어 衛氣가 가라앉게 된다.

脈은 月에 응하고 색은 日에 응하니, 낮에는 氣가 陽分으로 行하여 색이 나타나는 것이 빛나서 밖으로 반영되고, 밤에는 氣가 陰分으로 行하여 색이 나타나는 것이 밝고 윤택하여 안으로 머금는다. 맑을 때는 氣가 熱하니, 熱하면 氣가 活潤하고, 活潤하면 黃赤이 된다. 흐릴 때는 氣가 寒하니, 寒하면 血이 凝泣하고, 凝泣하면 靑黑이 된다. 이것이 모두 그 응하는 바이다.

색이 晝夜·陰晴과 응하는 것이 정상이며 晝夜·陰晴과 응하지 아니한 것은 病이다. 모든 病은 아침에 상쾌하고 낮에 안정되었다가 저녁에 더해지고 밤에 심해지는 것이 많으니, 색도 마땅히 이로 인하여 病이 아침에 상쾌하고 낮에 안정되었다가 저녁에 더해지고 밤에 심해지는 것에 인한다. 그것이 혹 저녁에 가벼워지고 아침에 심해지거나, 밤에 가볍고 낮에 심해지는 것은, 衛氣에서 병이 난 것이 아니라 오직 臟氣에서 主하는 것이니, 이는 반드시 臟氣의 不勝하는 바의 時에 심해지고, 그 勝하는 時에 낫는다³¹⁾.

4) 地

사람에게 몸이 있음은 天으로부터 바탕이 시작되고 땅으로부터 바탕이 생겨나며 精氣를 풀어서 形을 이루고 陰陽에 의존하여 命을 부여받는다. 다만 天地에는 五方의 다름이 있어 氣化에 五行의 다름이 있으니 風土가 이에 변하며 氣색이 이로 말미암아 나누어진다.

經에 이르기를 東方의 사람은 靑色이 많고, 南方의 사람은 赤色이 많고, 西方의 사람은 白色이 많으며, 北方의 사람은 黑色

이 많고, 中央의 사람은 黃色이 많다하였으니 이것이 서로 응함을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상응하는 것은 색의 常이고, 응하지 아니하는 것은 색의 變인데, 혹 常이고 혹 變이라도 지나치고 모자람이 없는 것은 平色이고, 혹 常이고 혹 變이라도 지나치고 모자람이 있는 것은 病色이다.

요컨대 天이 地의 바깥을 싸고있고 地는 天의 가운데 있으므로, 天氣가 地氣를 勝하는 것이 順이 되고 地氣가 天氣를 勝하는 것은 逆이 된다. 五色이 드러남이 혹 五方의 正色에 합하지 않더라도 四時의 平核에 합하는 것이 常이니, 天을 이어 때에 따라 地道를 행하는 것이다. 四時에 합하지 아니하면서 聲音脈證이 相生하는 것은 病이 順한 것이지만, 四時에 합하지 아니하면서 聲音脈證이 相克하는 것은 病이 逆하는 것이다.

五色의 변화에 가히 예들을 비교하여 헤아려 볼 수 있으니, 자세히 말하면 한 方의 사이나 한 郡의 안에도 地形의 高下가 있으면 風氣에 寒溫이 있고, 地形에 燥濕이 있으면 風氣에 剛柔가 있다. 風氣가 이미 中에 感하면 形色이 반드시 밖으로 응하게 된다³²⁾.

Table 9. 방위에 따른 主色

方位	屬五行	多色
東	木	靑
南	火	赤
中央	土	黃
西	金	白
北	水	黑

5) 人

『內經』에서의 診脈하는 法과 마찬가지로 氣色을 살피는 것도 外物에 접하지 않은 靜한 상태를 중시한다. 사람의 氣色을 보는 것은 하늘이 바야흐로 밝아지려는 때가 貴하니 닳이 울고난 후 동트기 전 血氣가 어지럽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으며 神色이 분리되지 않고 사람일을 접하지 않으며 겨우 자리에서 일어날 때, 휘장 안에서 종이로 불을 밝혀 吉凶을 변별하고 疔證하여야 잃음이 없다. 만약 처마에서 나아가 빛나는 곳에서 보면 모두 本分の 氣색이 아니다. 세수하고 이뉘으며 음식을 먹고 湯藥을 먹은 다음이 가장 얻을 수 없으니, 그런 후에 보면 또한 疔證하기 어렵다³³⁾. 望診의 法은 天道의 다름이 있고 人事의 변화가 있다. 病色을 알려면 먼저 常色을 알아야 하고, 常色을 알려면 먼저 常색의 變을 알아야 하며, 常색의 變을 알려면 먼저 常색의 變의 變化를 알아야 한다. 이는 일시적인 變化를 病으로 오진함을 막기 위해서이다.

(1) 動靜

飲酒하면 脈滿하고 絡이 充滿하여 目紅·息粗하며 色赤하다. 肝이 뜨고 膽이 橫하면 발을 높이 들어 걸으며 의기양양하고 色靑하다. 食은 陰에 入하고 氣는 陽에서 長하므로 飽食한 자는 血이 華色이 돌고 더욱 윤택하다. 주리면 氣衰하고 심하면 氣少하므로 굶주린 자는 色澤이 감소하고 少氣한다. 눈비탈 속에서 돌아다니는 자는 寒이 肌表에 침입하므로 色靑하고 閉塞하고, 땀벌 속에서 돌아다니는 자는 熱이 皮膚를 침습하므로 色赤하고 浮散한다.

29) 陳淡堃, 相理衡眞, 中國, 武陵出版有限公司, 1992, pp. 464-465.

30) 홍원식,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중앙의학연구원, 1985, p. 200.

3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제7기 졸업준비위원회, 望診遺經, 서울, 목과土, 2000, pp. 38-39.

32)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제7기 졸업준비위원회, 望診遺經, 서울, 목과土, 2000, pp. 40-41.

33) 陳淡堃, 相理衡眞, 中國, 武陵出版有限公司, 1992, pp. 433-434.

房勞하면 精氣가 下泄하므로 目下가 色靑하고, 用力한 자는 血氣가 위로 오르므로 面上이 色赤하다. 오래 누워있으면 傷氣하니 얼굴이 壅滯하고, 자지 못하면 傷血하니 色이 浮赤하다.

(2) 七情

怒하면 肝氣가 上逆하니, 발근 화내면서 눈을 크게 뜨고 털이 서며 面蒼한다. 부끄러워하면 心氣가 怯하여 얼굴을 붉히며 汗出하고 面赤한다. 생각이 많으면 氣가 脾에서 맺히어 눈꺼풀이 굳고 面黃하고 거칠어진다. 기뻐하는 氣가 밖으로 發하면 턱이 풀어지고 色紅하며 또한 散한다. 슬퍼하면 氣가 內에서 消하여 五臟이 搖動하고 色澤이 적어지고 소리가 슬프고 낮다. 근심하면 氣가 中에서 다투어서 양눈썹이 서로 닫히고 색이 沈滯하고 氣鬱하여 막힌다. 겁내고 두려워하면 精神이 흩어지고 고달파 不收하여 色脫하고 面白하게 된다. 놀라 두려워하면 血氣가 분리되어 어그러지고 어지러워 氣促하고 面靑하게 된다.

이것이 모두 常色의 變中의 變이니, 그 氣色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반드시 그 氣色이 定해진 후에 진단해야 한다³⁴⁾.

(3) 老少

色이 일치하지 않는데는 또한 老人과 少年에 차이가 있다. 少年의 때에는 血氣가 盛하고 肌肉이 부드럽고 氣道가 通하며 營衛가 빨리 行하는데, 老人이 되면 血氣가 衰하고 肌肉이 마르고 氣道가 갈갈해지고 營衛가 느리게 行한다. 그렇기 때문에 老人의 色은 수척하고 파리함이 많고, 少年의 色은 潤澤함이 많은 것이다³⁵⁾.

(4) 貧富貴賤

形志의 苦樂이 같지 않으므로 氣體의 居處·營養도 각각 다르니, 富貴貧賤을 마땅히 살펴야 한다. 가난한 집에서는 고기를 먹기가 어려우니, 높은 신분의 사람과 똑같이 볼 수 없다. 貧賤者는 形容이 마르고 面貌가 검으니 혹독한 熱과 엄한 추위에 시달림을 받았기 때문이고, 富貴者는 신체가 부드럽고 무르며 肌膚가 살지고 희니 넓고 좋은 집에 거처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⁶⁾.

3. 『內經』에서의 色의 반영

色은 天地人의 상황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人身의 상황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는 本藏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과 특정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같은 色이라도 나타나는 곳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1) 本藏의 반영

色은 本藏을 반영한다. 本藏의 色은 肝靑·心赤·脾黃·肺白·腎黑을 말한다. 이는 本藏이 주관하는 부위에 本藏色이 나타나는 경우와 특정 부위에 나타나는 本藏色으로 구분할 수 있다.

本藏이 주관하는 부위에 本藏色이 나타나는 경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靈樞·五閱五使』에서 五藏에 病이 있는 경우 五官 부위에 本藏色이 나타나는 것이다³⁷⁾. 이런 경우에는 특정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 근원이 되는 臟腑를 반영하는 예가 많다. 예를 들어 臟腑에 특수한 상황에 따라 熱이 발생하여 痿證이 나타났을 때 그 원인이 되는 臟腑의 色과 主하는 부위에 증상이 나타나고³⁸⁾, 五藏風이 발생했을 때 각 藏을 반영하는 특정부위에 그 本藏色이 나타난다³⁹⁾.

특정부위에 나타나는 本藏色의 경우는 어떤 특정부위에 어떤 色이 나타났을 때 이는 그 色이 속하는 本藏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때의 특정부위는 五藏의 精이 모이는 부위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目的 色이 赤色이면 病은 心에 있고, 白하면 肺에 있으며, 靑하면 肝에 있고, 黃하면 脾에 있으며, 黑하면 腎에 있다⁴⁰⁾. 皮膚의 경우 靑色으로 小理하면 肝小하고 粗理하면 肝大하고, 赤色으로 小理하면 心小하고 粗理하면 心大하며, 黃色으로 小理하면 脾小하고 粗理하면 脾大하고, 白色으로 小理하면 肺小하고 粗理하면 肺大하며, 黑色으로 小理하면 腎小하고 粗理하면 腎大한 것으로 色과 腠理의 小粗가 本藏의 大小를 반영한다⁴¹⁾.

2) 특정상황의 반영

앞에서는 色을 통하여 근본이 되는 藏을 찾아냈다면, 여기서는 色을 통하여 해당부위의 상태를 알아낸다. 이는 經絡의 반영과 인체배속된 부위의 반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經絡에서 經脈은 항상 보이지 않은 것으로 그 虛實은 氣口로 알고, 脈이 나타나는 것은 모두 絡脈이다. 해당하는 脈色이 靑하면 痛이고, 赤하면 熱이며, 胃中이 寒하면 手魚의 絡이 多靑하고, 胃中이 熱하면 魚際의 絡이 赤하며, 갑자기 黑해지는 것은 오래된 痺이고, 赤이 있고 黑이 있고 靑이 있는 것은 寒熱氣이다⁴²⁾.

皮膚를 살펴서 三陰三陽의 해당하는 부위에 浮絡이 있으면 이는 해당 三陰三陽의 浮絡으로 多靑하면 痛이고, 多黑하면 痺이며, 黃赤은 熱이고, 多白하면 寒이며, 五色이 모두 보이면 寒熱이다⁴³⁾. 이는 尺部의 血脈의 상황을 살피는 것과도 비슷하니 尺部의 혈맥이 多赤하면 多熱하고, 多靑하면 多熱하며, 多黑하면 久痺이고, 多赤多黑多靑이 모두 보이면 寒熱身痛하다⁴⁴⁾.

인체배속은 藏象에서 臟腑가 주관하는 부위와 『靈樞·五色』에서의 人身의 안면배속을 모두 유념해야 한다. 어떤 질병이 발생한 경우 色이 나타난 부위는 이상이 나타난 곳을 반영하고 色은 그 病邪의 특징을 반영한다. 五官을 포함한 臟腑가 주관하는

聞五官。… 鼻者，肺之官也，目者，肝之官也，口唇者，脾之官也，舌者，心之官也，耳者，腎之官也。… 以官候候。… 以候五臟。故肺病者，喘息鼻張，肝病者，眇青，脾病者，唇黃，心病者，舌卷短，頰赤，腎病者，頰與頰黑。”

38) 홍원식,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5, p. 166. 『素問·痿論』“肺熱者，色白而毛敗。心熱者，色赤而絡脈溢。肝熱者，色蒼而爪枯。脾熱者，色黃而肉蠕動。腎熱者色黑而齒痛。”

39) 홍원식,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5, pp. 157-158. 『素問·風論』“肺風之狀 多汗惡風 色然白 時咳短氣 … 診在眉上 其色白。心風之狀 多汗惡風 焦絕善怒 嗥 赤色 … 診在口 其色赤。肝風之狀 多汗惡風 善悲 色微蒼 喑乾善怒 … 診在目下 其色靑。脾風之狀 多汗惡風 … 色薄微黃 … 診在鼻上 其色黃。腎風之狀 多汗惡風 面眇然浮腫 … 其色黃 … 診在肌上 其色黑。”

40) 홍원식,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5, p. 309.

41) 홍원식,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5, p. 214.

42) 홍원식,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5, p. 84.

43) 홍원식,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5, p. 198.

44) 홍원식,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5, p. 309.

45) 홍원식,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5, p. 227.

34)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제7기 졸업준비위원회, 望診遠經, 서울, 木과土, 2000, pp. 47-48.

35)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제7기 졸업준비위원회, 望診遠經, 서울, 木과土, 2000, pp. 43-44.

36)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제7기 졸업준비위원회, 望診遠經, 서울, 木과土, 2000, p. 45.

37) 홍원식,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5, p. 186. “願

부위에 색이 나타난 경우, 색이 나타난 부위는 그 부위를 주관하는 臟腑의 이상을 나타내고 색은 그 臟腑病邪의 성질을 나타내니 黃赤은 熱이고, 白은 寒이며 靑黑은 痛이다. 人身의 안면배속의 경우에는 색이 나타난 부위는 發病한 인체부위를 반영하고 색은 病邪의 성질을 나타내니 黃赤은 風이고, 靑黑은 痛이며, 白은 寒이고, 黃하고 膏潤한 것은 膿이며, 赤이 심한 것은 血이다⁴⁹⁾.

결 론

이상의 연구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人身은 神이 주재를 하고 五藏은 神을 간직하므로 五藏의 변화는 神으로 나타나니 氣色은 이를 반영한다. 氣色을 분리하여 볼 수는 없지만 구분해보면 光明潤澤한 것을 氣로 보고 靑赤黃白黑을 색으로 볼 수 있고, 皮中에 있는 것을 氣로 보고 皮外에 드러난 것을 색으로 볼 수 있다. 氣色の 변화는 다양하지만 陰陽을 벗어나지 않으니 內外·上下·左右, 浮沈·清濁·微甚·散搏·澤夭와 색을 합하면 陰陽·表裏·寒熱·虛實 및 生死와 예후를 알 수 있다. 五形人의 특징으로 本色을 결정한다. 색이 겹하여 나타나는 것은 겹해진 색의 관계가 相生인 合化와 相克인 相兼이 있으니, 合化는 예후가 좋고 相兼은 예후가 좋지 않다. 각각의 색은 경과

시기에 따라 그 색의 특색이 있으니 初·中·末의 다름으로 그 진행 상태를 추정한다. 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天時·地理·人事의 다름이 있으니, 天에서는 四時·晝夜·陰晴에 따라, 地에서는 方位·地形에 따라, 人에서는 動靜·七情·老少·貧富貴賤에 따라 氣色이 변화하므로 常變과 逆順을 헤아려 진단해야 한다. 색은 人體의 상황을 반영하니, 나타난 상황과 부위를 고려하면 색을 통하여 臟腑의 상태, 發病한 臟腑, 病邪의 성질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제7기 졸업준비위원회. 望診遵經. 서울, 木과 土. 2000.
2. 이봉고, 박영배, 김태희. 漢方診斷學. 서울, 성보사. 1992.
3. 陳淡堃. 相理衡眞, 中國, 武陵出版有限公司. 1992.
4. 임양근. 진단학 아틀라스 망진, 서울, 정담. 2003.
5. 秦愼安, 神相鐵關刀.
6. 윤창열, 김용진, 김정규. 懸吐完譯 四診心法要訣. 대전, 주민출판사. 2001.
7. 홍원식.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5.
8. 홍원식.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5.